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0월 22일 (목) 14시 3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4. 연합정책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의사보고 ····· 2면
1.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51) ···· 2면
2.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52) ····· 3면
3.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 3면
4. 연합정책질문의 건
- 서다운 의원 ····· 6면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53) ····· 13면
○ 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 14면
○ 5분 자유발언(고제열 의원) ····· 16면
○ 5분 자유발언(편삼범 의원) ····· 17면

(14시 3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허 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보고**

(14시 38분)

○**총무담당관 박윤정** 총무담당관 박윤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연합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김기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편삼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이병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안, 김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기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 모두 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연합정책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김종욱·고제열·편삼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허 철**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51)

(14시 40분)

○**의장직무대리 허 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2.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52)

(14시 41분)

○**의장직무대리 허 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성규 의원님과 이순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3.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14시 42분)

○**의장직무대리 허 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허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연합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 섬비엔날레 개최 도시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충청남도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공기관 배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충청남도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을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통합과 통합본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전력 공급의 최전선에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충청남도와 지역 주민의 헌신과 피해가 정당한 보상 없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서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5개 발전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52기 가운데 절반 이상인 28기가 충청남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도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 발전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며 막대한 환경오염, 송전탑 선로로 인한 경관 훼손,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라는 삼중고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

그런데 이제 탄소중립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지역 경제 침체와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등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의로운 전환의 기로에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청남도 유치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피해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충청남도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있으며, 발전시설과 송전망, 전문 인력 등 발전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한 통합본사 유치는 충청권의 에너지·산업 협력과 공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발전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고용, 지역

경제의 전환 수요도 큰 지역이다.

기존 본사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 인력과 주거·교육 등 정주기반, 지역 협력 체계를 활용하면서 에너지 전환 현장과 통합 본사의 정책·투자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지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다른 혁신도시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다져 온 반면, 충남혁신도시는 지정 이후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되지 않아 지역 발전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부가 통합본사 입지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격차와 공공기관 배치의 형평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충남이 감내해 온 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석탄화력발전의 중심지이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 현장인 충청남도에 유치해야 한다. 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함께 추진해야 할 충청권 상생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560만 충청권 시·도민을 대표하는 충청광역연합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의 충청남도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 부처는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환경적·경제적 부담을 감내해 온 충청남도의 역사적 기여와 희생을 인정하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충청남도에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합본사 입지 선정 시 충청남도의 에너지 전환 여건을 우선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22일.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허 철**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

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4. 연합정책질문의 건

- 서다운 의원

(14시 50분)

○**의장직무대리 허 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합정책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연합정책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다운 의원님이십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을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이고, 보충 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허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서구 제4선거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임기 첫, 연합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합 질문을 통해 충청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고민을 연합장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지난 2024년 12월 첫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는 수도권 1극 체제의 거센 위기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560만 충청인의 미래, 100년을 열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청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주민 여러분의 기대

또한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 충청 주민들은 메가시티 변화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가? 기존 4개 시도가 모여 만들었던 협의체에서 지금의 충청광역연합은 시도민께 변화를 드리고 있는가?

‘대한민국 제1호’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실상은 껍데기만 요란하고 속은 텅 빈 무늬만 메가시티는 아닌지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초기 준비와 적응이라는 이름의 변명은 더 이상 460만 시·도민께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성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할 분기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충청광역연합의 현주소를 짚고 진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연합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먼저 출범 2년,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의 좌표 재확인입니다.

연합은 이제 단순한 출범 초기 기반 구축 단계를 지나 주민 체감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핵심 초광역 인프라가 본궤도에 올라서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7년 연합이 집중할 핵심 추진 과제와 세부 실행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초광역 교통망 연계, 첨단 미래 산업 벨트 구축 등 말뿐인 희망가가 아니라 2027년을 목표로 연합이 설정한 핵심 전략 과제의 연도별·단계별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지연 리스크를 극복할 실효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범백서에서 제시한 4대 발전 과제인 재정 확보, 자치권 확대, 조직 안정, 협력 사무 확대를 새 연합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진행시켜 왔으며, 내년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실질적 권한과 독자재정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4대 발전과제의 전략적 추진 현황과 달성도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내년도 중점 투자 계획과 전략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재정과 권한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인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의 핵심 골자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해 우리 주민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성패와 존립을 좌우할 가장 본질적이고 뼈아픈 문제는 재정과 권

한의 실질적 확보입니다. 명칭만 있고 실질적 수단이 없는 무늬만 연합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초광역특별계정의 현실화 및 국가 직접 교부 명문화, 그리고 2027년 초기 재정 공백을 메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었지만, 이것이 기존처럼 4개 시·도를 거쳐 배분받는 간접 방식이나 단순 분할로 전락한다면 광역연합의 자율적 재정 운영권과 사업 추진력은 무색해집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광역연합에 직접 교부하는 법적 근거를 특별법 및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연합의 실질적 예산 편성, 신청 권한과 독자적 계정 운용 근거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더욱 시급한 것은 현실적인 재정 집행 시점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 일정과 2027년 1월 초광역특별계정 시행 간의 시차로 인해 당장 '27년도 충청권 핵심 성장 엔진 사업들의 초기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특별계정 출범 이전이라도 2027년도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 등의 과감한 초기 재원 확보를 연합장께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연합의 대정부, 대국회 총력 대응 전략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의 구체적 이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4개 시·도로부터 위임받는 초광역 사무의 총사업비는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총괄 지원해야 할 연합 자체 예산은 시도 분담금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극심한 재정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상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합의 안정적 재정 인프라 구축과 자치권 확립에 심각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세 감소나 중앙정부의 임의적인 교부세 감액, 교부시기 연기로 인해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하여 교부 대상에 특별자치단체 명시 및 법정 교부율 상향,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국가 직접 지원금 확보, 초광역특별계정을 활용한 권역사업 발굴, 위 세 가지 과제야말로 연합 재정 확보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고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발표와 함께 중부권을 첨단 전략 사업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 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업의 선정 절차,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시기 등에 대하여 충청광역연합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충청의 가치 발전을 위해 우리 연합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요청하는 만큼 충청권 4개 시·도가 스스로 연합에 맡길 핵심사무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도가 각자의 행정 칸막이와 개별 지자체 관할과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 없이는 중앙정부에만 일방적으로 권한과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출범백서에서도 금강수계를 충청권 전역에 걸친 대표적 공동 생활 환경권으로 규정하고, 금강유역환경청 기능의 연계 및 단계적 이관을 핵심 사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책 토론회에서도 충청권 차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 공동 구축, 골든타임을 사수할 광역 의료 협력 체계 마련, 감염병 공동 반영 체계 운영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실질적 협력사무 확대가 강력히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4개 시·도 간 협의에서 이러한 핵심 공동사무의 이양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시·도 간 이해 관계를 넘어 선제적으로 새로운 사무를 이양받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 등의 선행 절차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사무 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연합장의 구상과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합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청광역연합은 단순히 4개 시도의 행정구역을 합쳐놓은 명분상을 조직이 아닙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선 충청의 운명을 바꾸고 수도권 중심의 불평등한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560만 충청인의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 권한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현상 유지에 안주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총사업비 2조 9,000억 원의 위임사무와 56억 원의 현 예산이라는 극심한 재정 괴리를 깨부수지 못한다면 4개 시·도가 개별 이해관계에 갇혀 핵심 권한 하나 연합에 넘겨주지 못한다면 충청광역연합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과감한 돌파력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이 560만 주민의 삶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초의, 최고의 특별지방정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박수현 연합장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 철**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연합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장 박수현** 존경하는 서다운 의원님의 연합정책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12월 출범 후에 2년여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제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시·도민께 진정한 변화를 드리고 있는가, 무늬만 메가시티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면서 이제는 막연한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성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과 권한이 없다라는 변명에 머무를 때가 아니고,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과감한 돌파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의 요지를 다 일일이 메모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목만 메모를 했는데,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질문의 항목에 다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총괄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더 필요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의 좌표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핵심 추진 과제와 실행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초광역 교통망의 건설 등을 말씀하셨고, 출범백서에서 제시한 4대 발전 과제의 경과와 2027년도 실행 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과 권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초광역특별계정에 우리 충청권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도 주셨고, 4대 발전과제 경과와 계획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골자를 주민께 설명해 달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재정 확보 방법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법, 그다음에 초광역특별계정 활용한 권역사업 발굴 등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시·도가 연합에 맡길 사무 발굴 계획에 대해서도 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간에 PPT 화면도 아마 송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합 출범 2년 동안에 4대 발전 과제와 성과, 문제점 및 대책을 우선 설명드리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은 4대 발전 과제인 재정 확보, 자치권 확대, 조직 안정, 협력사무의 확대를

위해 연합 출범 이후에 행정안전부 및 국회 등에 연합의 설립 배경 및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모두 22회, 2025년에 18회, 2026년에 4회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26년에 월에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법도 지난 9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7월 1일 대표발의되어 국회 상임위 심의 중에 있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연합의 업무 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또 '26년 7월 이후에도 국무총리 간담회, 행안부장관 면담,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 특별법 제정 정책 토론회 등 다방면 등으로 연합의 외연 확장과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가야 할 길이 쌓여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각 법률의 개정 사항은 한계가 있어서 특례 사항과 재정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연합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움)

지금 화면에는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지방분권균형성장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그 이관 대상 및 권한이 불분명하고, 개별 협의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조직·인력·재원의 지원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분권균형성장법은 초광역특별계정 세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입금만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세 중 지역과 관련이 높은 세목을 초광역특별계정 재원으로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교부 대상에 추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또 대정부, 이런 정무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충청광역연합 재정의 현주소와 재정 확보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합 재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시도 분담금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그리고 초광역특별계정을 통해서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연합이 이것을 바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과 초광역특별계정은 대상 사업이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연합의 규약 사무 분야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신설 예정인 초광역특별계정은 ’27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현재 예산 편성,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각 소관 부처에서 여전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와 함께 5극 3특 발전전략 중에서 충청권 산업 및 생활권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정부 소관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확실한 측면들이 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그리고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재정 특례 등의 다양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재정 특례 조항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에 담아서 원활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충청광역연합에서 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시에 예산 편성·집행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 재정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재 논의 중에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방면으로 검토한 현 제도상의 부족한 면을 자료화면과 같이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시에 개선하여 연합의 규약 사무 범위 및 특례, 그다음에 실질적 자치권 확보,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 법적 지원 체계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특별법 연구용역을 현재까지 계획은 연내에 추진하고, 그리고 내년 추진해서 3월까지 이것을 완료하고, 6월 이내에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일단 이렇게 보고드리지만, 이 부분 시간을 더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연합 핵심 추진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연합 기틀을 마련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부터 전략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분야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에 5극 3특 초광역권 발전 전략 수립에 따라 내년에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여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및 운영을 ’27년 1월 세종～공주 광역 BRT를 개통하여 충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출발, 본격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광역철도 1단계 계룡～신탄진, 대전～옥천 및 세종～안성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충청권 광역 교통망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초광역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4개 시·도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큰 사무를 발굴하고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등 국가이양사무 검토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다운 의원님의 여러 질문과 지적들을 잘 고려하여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힘 있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금 서다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건의하고 토론하고 요구할 계획으로 오늘 일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질문에 제가 다 답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지적과 질문,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 철** 박수현 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연합정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박수현 연합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현 연합장님께서 현안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합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수현 연합장 퇴장)

---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53)

(15시 18분)

○**의장직무대리 허 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15시 19분)

○**김종욱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허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연합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청남도 논산 출신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2월, 대한민국 딸기의 본고장 논산에서 개최될 ‘2027 논산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이를 기점으로 충청권이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연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산은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딸기 생산량의 19.3%, 충남 생산량의 92.1%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2025년 기준 생산액은 2,795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제 단순 신선 농산물 생산을 넘어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설향, 킹스베리, 비타베리는 국산 품종 보급률을 96.3%까지 끌어올렸으며,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람회에서 9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성사시키는 등 K-딸기는 이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재정경제부 심사를 거쳐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생산유발효과 5,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700여 명에 달하는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엑스포는 충남을 넘어 충청권 농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목표 관람객 154만 명 유치와 세계 최초 딸기산업 특화 엑스포의 성공적 완수는 충남도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치는 강력한 광역적 행정·재정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엑스포를 ‘충청권 공동의 글로벌 애그테크(AgTech) 비즈니스 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논산시와 충남도의 역량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청광역연합이 주도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딸기연구소 등 전문 기관과의 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유망 첨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엑스포 산업관이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가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엑스포를 마중물 삼아 충청광역연합 핵심 과제인 ‘충청권 광역 스마트팜 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충남과 충북의 탄탄한 생산 인프라, 대전 대덕특구의 AI·로봇·디지털 R&D 역량, 세종의 스마트 행정 연계성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자립을 전폭 지원한다면, 농촌의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젊은 농부들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충청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충청권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원팀(One-Team) 릴레이 통합 홍보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그동안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보령머드축제, 서울국제관광전 등 주요 박람회 현장에서 논산 딸기엑스포 홍보를 펼쳐왔고, 논산 현장에서는 주민과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열기가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의 열정과 헌신에 충청권 전체가 행정력과 공동 홍보 플랫폼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수현 연합장과 공직자 여러분!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라는 슬로건처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우리 농업이 미래 첨단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충청남도의회와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가교로서 엑스포의 성공과 충청 농업의 대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560만 시·도민 여러분과 4개 시·도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청 원팀’으로 뜻을 모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엑스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 철**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고제열 의원)**

(15시 24분)

○**고제열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허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중구를 지역구로 둔 충청광역연합의회 고제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여성과 청년 벤처기업의 창업 기반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초혼 청년 부부 인구동태패널 분석 결과, 혼인 후 3년간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주택 소유 비중은 37.5%, 출산 비중은 73.2%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혼인 후 청년 거주 비중이 증가한 곳은 충청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통계 이면에 청년·여성의 수도권 유출과 고용 불안,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방으로 온 청년들도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이주 후 상시근로자 비중이 약 14.3%포인트 감소하고, 비취업자는 12.5%포인트 증가해 경력 단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자명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정주 여건만으로는 청년과 여성을 충청에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 창업과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충청을 찾았던 청년들마저 다시 짐을 싸서 수도권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청년과 여성 벤처 창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장의 청년들은 과도한 초기 자금 조달의 벽과 실패에 대한 낙인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고, 충청권 여성 창업 역시 생계형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을 뿐, 출산·육아 돌봄 부담과 남성 중심적 투자 환경에 막혀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 벤처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충청권 광역 창업 거점 인프라 및 돌봄 친화적 벤처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충청권의 핵심 산업 인프라를 연결하여 광역 단위 벤처·창업 타워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들이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개방형 네트워킹

을 원스톱으로 누릴 뿐 아니라, 여성 창업가들이 육아와 경력 단절의 벽을 넘어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공간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충청권 여성벤처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초기 벤처 인증부터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패키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대전충청지회를 중심으로 충청권 여성 벤처 연대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광역시·도가 함께 손을 잡고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기술, 디지털 등 미래 신산업 첨단기술 분야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통합 지원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우수한 청년·여성 벤처를 조기에 발굴해 전문 벤처인증 획득까지 직결시키는 실질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초기 극심한 자금난과 생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1,000개의 든든한 기술 벤처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판로 개척과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마케팅 비용과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성 기업인들을 위해 초광역 차원의 글로벌 수출·바이어 매칭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수현 연합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충청,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혁신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충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청권이 초광역 메가시티이자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에게 더 넓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 철** 고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편삼범 의원)

(15시 31분)

○**편삼범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허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이 행정의 결합을 넘어 교육과 인재 양성의 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공동으로 설치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교통·산업·문화·관광 등 시·도 경계를 넘어 사무를 함께 처리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구성과 운영에는 4개 시·도 교육청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합의회도 시·도별 4명씩 모두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준과 교육정책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빠진 초광역 협력이 과연 온전한 초광역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에서 태어나 세종에서 학교를 다니고, 충남의 대학을 거쳐 충북의 기업에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배움에서 청년의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하나로 연결할 때 비로소 충청권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한계는 분명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지만,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관장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을 곧바로 연합의 구성 단체로 편입하거나 규약과 조례만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연합장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한계가 교육청을 계속 협력의 주변에 세워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법 안에서도 협약과 공동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협력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충청광역연합과 4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충청권 초광역교육협력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연합과 시도, 교육청은 물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인재 양성, 광역 통학 지원, 교육 격차 해소와 농산어촌학교 지원을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기존 시·도별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연계하고, 충청권 공동 협약으로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청광역연합 규약과 의회 제도를 정비하여 교육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합이 직접 교육·학예 사무를 넘겨받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교통·정주·문화 사무 가운데 교육청과 연계해야 할 협력 사항을 규약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 의회가 선임하는 연합의원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도록 선임

기준을 정비하고, 가칭 ‘초광역교육·인재양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충청권 초광역 교육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업계고 공동 교육 과정과 대학-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청권 역사·문화 탐방, 과학·발명 캠프, 농어촌 체험과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별 주관 기관과 재원 분담 방식,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공동 건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초광역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충청권의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연결하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이 빠진 초광역 협력은 반쪽짜리 협력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4개 시·도와 4개 교육청이 동등한 협력 주체로 참여하여 산업과 교육, 일자리와 정주가 이어지는 충청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560만 충청인의 삶을 바꾸는 통합,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통합, 교육이 함께하는 통합을 만들어 갑시다.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교육청 참여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과 규약 및 관련 조례 정비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 철**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성 연합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고제열 구형서 김기흥 김명숙 김종욱 서다운 윤성규 이병하

이한영 정재우 편삼범 허 철

○**청가 의원(4인)**

김종필 유인호 이순열 조중근

○**의회사무처**

처 장 권승학

총 무 담 당 관 박윤정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연 합 장 박수현

연 합 사 무 처 장 이경성

초 광 역 자 치 과 장 임은영

초광역산업문화과장 김민회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원계령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1.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고제열 김기흥 김명숙 김종욱 서다운 윤성규 이병하 이한영 정재우 편삼범 허 철

2.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고제열 김기흥 김명숙 김종욱 서다운 윤성규 이병하 이한영 정재우 편삼범 허 철

3.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제열 구형서 김기흥 김명숙 김종욱 서다운 윤성규 이병하 이한영 정재우 편삼범 허 철

5.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고제열 김기흥 김명숙 김종욱 서다운 윤성규 이병하 이한영

정재우 편삼범 허 철